

“2022 항저우 AG를 향해 싸라”

2022 양궁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스타트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과 세계양궁연맹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 출전 할 태극마크를 선발하는 2022 양궁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이 26일 예천 진호국체양궁장에서 안산(광주) 김제덕(경북일고) 등 도쿄 올림픽 스타들을 비롯한 남자 102명, 여자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본격레이스에 돌입했다. 첫날인 26일 70m 4회 기록합계로 남녀 각 64명이 가려졌다. 이들은 27-29일 토너먼트, 리그전을 치러 점수 합산으로 남녀 각 32명의 1차 관문 통과자가 가려진다. 사진은 여자부 경기 모습.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조선대 검도, 단체·개인전 정상

회장기 대학검도선수권

조선대 검도부가 제20회 회장기 전국 대학검도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과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 조선대는 최근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포크대를 3-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8·15 광복절기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와 제50회 전국학생검도대회 단체전에서 준우승에 그쳤던 조선대는 이번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아쉬움을 털어냈다. 개인전에서 출전한 양상훈(4년)은 예선부터 결승까지 단 1점만을 내주는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최강자로 우뚝 섰다. (사진) 울초 SBS배 전국 검도왕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양상훈은 검도 입문 이래 처음으로 전국대회 정상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 오길현 조선대 검도부 감독은 “체력 조건이 빼어난 양상훈은 전형적인 대기만성형 선수”라며 “타고난 성실함으로 꾸준히 훈련에 매진한 결과 값진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전남체육, 유·청소년 스포츠기반 구축 ‘시동’

대한체육회 공모, 2개 분야 3개 단체 선정 ‘성과’ 특성화된 프로그램...스포츠 참여율 증진 ‘탄력’

전남도체육회가 2021년도 유·청소년 스포츠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서 유·소년 스포츠 사회가치 창출 등 2개 분야 3개 단체가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전남도체육회는 26일 “최근 대한체육회에서 공모한 청소년체육활동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인 유·청소년스포츠기반 구축 사업에서 포크시체육회와 순천스포츠클럽이 유·소년 스포츠 사회가치 창출 사업에, 전남불링협회가 지역별 스포츠 유망주 육성 캠프 사업에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유소년 스포츠 사회가치 창출 사업에 3천700만원과 지역별 스포츠 유망주 육성 캠프 사업 5천만원 등 총 8천700만원의 사업비는 향후 사업계획서 보완 이후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모는 대한체육회가 종목별 변형스포츠모델 개발 및 보급 지원, 종목별 세력 발굴대회, 유·소년 스포츠 사회

가치 창출 사업, 지역별 스포츠 유망주 육성 캠프 등 4가지의 세부 사업을 유·청소년(만 3세-중학생)을 대상으로 종목 및 지역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함으로써 장기적인 종목 저변확대와 스포츠 참여율 증진을 위해 2021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포크시체육회와 순천스포츠클럽이 선정된 유·소년 스포츠 사회가치 창출 사업은 유·소년 자신감 향상, 우울증·스트레스 해소, 유소년 공동체 의식 향상, 기타 자유 주제 등 4가지의 사회적 가치영역을 선택해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해 기초종목과 일반종목 경합을 통한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고 유소년에게 지역사회의 유의미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유도한다. 전남불링협회가 추진할 지역별 스포츠 유망주 육성캠프는 지역 내 시설을 활용해 불링 종목과 관련된 다양한 지



지난 7월 청소년스포츠한마당 대회에서 진행된 불링 경기. <전남도체육회 제공>

식을 습득하고 경합할 수 있도록 지역의 학교운동부 또는 실업팀과 연계하여 캠프 프로그램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한 다.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체육활동을 통해 침체된 체육현장을 일으킬 수 있

도록 체육회는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 및 재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해 도내 유·청소년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건강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장영인 명예교수·신정식 회장·KGC 염혜선

‘자랑스러운 전남인 상’ 수상

제25회 전남도민의 날을 맞아 올 해 전남을 빛낸 자랑스러운 전남인에 체육인 3명이 선정됐다. 전남도체육회는 26일 “지난 25일 열린 제25회 전남도민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2021년도 자랑스러운 전남인 상’ 수상자에 장영인 순천대 명예교수, 신정식 전남도축구협회장, 염혜선 KGC인삼공사 프로배구단 선수 등 3명이 수상했다” 밝혔다. 자랑스러운 전남인상은 국내·외 각 분야에서 전남인의 공지와 명예를 드높인 도민과 출향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관광·문화·체육분야를 비롯해 6개 분야에서 선발해 도민의 날에 시상한다. 전남체육인 3명은 관광·문화·체육분야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장영인 순천대 명예교수는 광주·전남체육학회를 창립해 체육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순천대 체육부(소프트테니스, 배드민턴, 양궁)를 창단하는 등 도내 대학체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전남체육 진흥에 큰 구심점 역할을 했다. 신정식 전남도축구협회장은 통합 초대



장영인 명예교수 신정식 회장 염혜선

전남축구협회장으로 재임하며 한국축구 국가대표의 산실인 전남축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남축구발전기금을 조성해 유·청소년 선수 양성에 힘썼고, 도내 각종 전국규모 축구대회와 동계 스포츠 토브리그 유치 등을 통해 스포츠 마케팅 선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목포 출신 염혜선(KGC 인삼공사 배구선수)은 국가대표 배구선수로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 투혼을 발휘하며 여자배구 4강 신화를 이뤄내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줬다.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은 “자랑스러운 전남인 상을 수상한 3명의 체육인께 축하를 전한다”며 “전남체육인의 자긍심을 높여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강한 전남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또 하나의 타이틀 위해” “승부는 해 봐야 아는 것”



울산-전남, 오늘 오후 7시 FA컵 4강전 격돌

대한축구협회(FA) 컵 준결승에서 맞붙는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현대와 K리그2 전남 드래곤즈가 한 치의 양보 없는 승부를 다졌다. 울산과 전남은 27일 오후 7시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2021 하나은행 FA컵 결승행 티켓을 놓고 단판 승부를 펼친다. 시즌 막바지에 들어 흔들리고 있는 울산은 FA컵에서는 반드시 우승컵을 들어 올린다는 각오다. 지난 20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준결승에서 탈락했고, 24일에는 라이벌 전북 현대에 정규리그 선두 자리도 내준 만큼 분위기 반전이 절실하다. 홍명보 울산 감독은 4강전을 하루 앞두고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시즌을 치르며 FA컵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왔다. 연일 경기로 피로감이 없지 않지만, 4강까지 와 있고, 한 경기만 잘 치르면 결승까지 갈 수 있다”며 “우리 팀의 목표를 설정할 기회이기도 남은 기간 잘 준비해 좋은 결과를 얻자고(선수단과)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울산이지만 홍 감독은 “전남도 수비와 조직력이 좋아 한 골 차 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려운 승부를 예상했다. 하지만 ‘승리’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우리 팀은 공격진이 전체적으로 득점을 해주고 있어서 누구에게서 골이 터질 거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상승세에 있는 득점하는 선수들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홍명보 울산 감독 전경준 전남 감독

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산 현대라는 팀을 위해 또 하나의 타이틀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 팬들을 위해서도 타이틀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의 베테랑 수문장 조현우도 “감독님과 우리 팀의 목표가 두 개의 우승(K리그1·FA컵)이다. 선수들도 우승을 정말 하고 싶다”며 “홀에서 경기하는 만큼 팬들 앞에서 꼭 우승하도록 힘을 합쳐 좋은 경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K리그2에서는 유일하게 4강에 오른 전남은 2부리그의 자존심을 걸고 싸운다. 전경준 전남 감독은 “토너먼트는 다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에 따라 살아 남느냐 죽느냐 둘 중의 하나다. 결승전에서 어떻

게 되든 4강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며 “한 경기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 감독은 전남의 1-0 승리를 예상했다. 그는 “공격력이 아주 좋은 건 아니다. 우리의 장점인 수비, 막아내고 밀어내는 걸 잘 이행하면 기회가 올 거다. 기회를 잘 살리면 결과가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른다. 우리가 잘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울산의 단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계해야 할 선수로는 울산 스트라이커 오세훈을 꼽았다. 현역 시절 포항에서 홍 감독과 함께 된 연인이 있는 전 감독은 “(홍 감독과)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게 돼 기쁘고 영광”이라면서도 “승부는 해 봐야 하니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출사표를 냈다. 조현우가 경계 대상 1위로 꼽은 ‘광양 루니’ 이종호는 “도전자의 입장으로 더 높은 곳까지 가고 싶다. 힘이 닿는 데까지 끝까지 싸워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종호는 한때 울산에서 뛰며 2017년 FA컵 우승에 일조한 바 있다. 당시 결승 1차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하기도 했다. 적으로 울산을 마주하는 그는 “감독이 새롭다. 같이 뛰었던 선수들도 있고 문수구장에서 좋은 기억이 많다. 울산에 아직 나를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종호랑이’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울산에서 2017년에 FA컵 우승을 했고, 골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첫 골을 넣어서 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남다른 각오를 전했다. /연합뉴스



광주FC 임원상이 지난 24일 열린 K리그1 24라운드 수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터뜨린 후 환호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임원상, K리그1 24R MVP

수원FC戰 ‘1골 1도움’

프로축구 광주FC 임원상이 ‘하나원큐 K리그1 2021’ 24라운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임원상은 지난 2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순연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3대 1 승리를 이끌었다. 전남 18분 엄지성에게 땅볼 크로스를 연결하며 선제골을 도운 엄지성은 후반 8분 역습 상황에서 김종우의 패스를 이

어받아 빠른 돌파 후 오른발 슈팅으로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었다. 임원상은 경기 내내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광주의 공격을 진두지휘했다. K리그1 24라운드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는 조영욱(서울), 주민규(제주), 구스타보(전북)가 이름을 올렸다. 임원상, 엄지성, 기성용(서울), 강현목이 미드필더진을 형성했고 권경원(성남), 헨리(수원), 강상희(서울)가 라운드 최고의 수비수로 뽑혔다. 골키퍼는 김영광(성남)이다. /박희중기자